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5/ 19 통권 1519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악원장

'코리안 타임'에서 '투명성'까지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실제기장신고·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계산사례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 임차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최종점검사항과 판단요점>

개념, 구분	종합소득의 범위, 소득공제 · 세액공제 계산방법	적용항목
종합소득범위	근로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소득 + 연금 + 기타소득의 합계액	
보험료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적보험료	근로소득
주택관련공제	무주택자 임차료 등 40%, 주택차입원리금 등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초과당 30만원	종합소득
보험료세액공제	사적보험료(연 100만원까지)의 12%(장애인용 15%)	근로소득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연봉 3% 초과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근로소득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초·중·고는 1인당 300만원, 대학은 900만원)의 15%	근로소득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의 15% 등	종합소득
각종 세액공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종소신고한 경우는 사업소득세액은 제외 적용함	종합소득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11% 가산하여 세액계산 후 11% 공제	배당소득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세액의 20% ≤ 100만원 한도	사업소득
비교과세방법	이자 · 배당소득 연 2천만원까지의 분리과세 계산과 총소득 종합합산과세 중 큰 금액	금융소득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19 호 / 주간 20호

2021. 5. 19.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최종점검사항과 판단요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실제기장신고·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계산 사례	2
C E O 에 세 이	'코리안 타임'에서 '투명성'까지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회사건강검진지원금 근로소득 처리 관련 - 장학금에 대한 세금처리 -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등의 공급가액계산 - 임대사업장 포괄양수도 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발행여부문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올해부터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연금저축 소득구간별 실질 비과세율	10 11
직 장 인 Survival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 10가지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국조-2423, 2020.08.25) -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안-371, 2020.06.12)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세금신고 어려워 마세요"...국세청,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	15
마케팅 Tax consulting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 임차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	13
세 무 정 보	-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16
회 계 정 보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37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5

실제기장신고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계산사례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업종	실제기장, 기준경비율 계산방법(복식기장자는 기준경비율 50%만 인정), 단순경비율의 배율방법	적용 판단
(가) 식료소매 등(빵집) (522061)	단순경비율 90.7%, 기준경비율 4.7%, 매출 3억, 입증자료 완벽 충분 ① 실제기장 : 3억-입증매입 0.9-입증 인건비 0.8 - 임차료 0.3 - 기타 0.06 = 94,000,000원 소득 ② 기준경비 : 3억 - 0.9억 - 0.8억 - 0.2억 - 7,050,000(4.7%의 50%) = 92,950,000 소득 ③ 단순경비 : 3억 × (1-0.907) × 3.4배 = 94,860,000	소득은 ③ > ① > ②임 제일 적은 ② 가능하나, 가산세 20%추가 따라서 ① 방식으로 신고(20% 세액공제)
(나) 인적용역 (판매수수료) (940908)	단순경비율 75%, 기준경비율 24.4%, 매출 3억, 입증자료 중간 ① 실제기장 : 3억-매입 없음 0-입증인건비 1.2-기타 0.2 = 1.6억 소득 ② 기준경비율 방법 : 3억 - 1.2억 - 0.2억 - 36,600,000(24.4% × 50%) = 123,400,000 소득 ③ 단순경비 : 3억 × (1-75%) × 3.4 = 255,000,000	①, ②와 ③ 중 가장 적은 ②적용 ②+20% 가산세 부담해도 ①방법보다 적은 세금계산
(다) 내장공사 인테리어업 (452107)	단순경비율 91.2%, 기준경비율 12.1%, 매출 3억, 입증자료 일부 ① 실제기장 : 3억-입증매입 0.5-입증인건비 0.7-임차료 0.2-기타 0.1 = 1.5억 소득 ② 기준경비율 방법 : 3억 - 0.5억 - 0.7억 - 0.2억 - 18,150,000(12.1% × 50%) = 141,850,000 ③ 단순경비 : 3억 × (1-0.912) × 3.4 = 89,760,000	①과 ②가 비슷하지만 ③이 현격히 적어 20% 가산세 부담해도 가장 유리함 (③채택 : 단순경비율 높아서 실소득보다 적음)

(라) 도매 · 상품 중개업 (511115)	<p>단순경비율 79.8%, 기준경비율 21.6%, 매출 3억, 입증 인건비 3천만원만 있음(매우 부족) 실소득은 1.5억 내외</p> <p>① 실제기장 : 3억-입증인건비 3천만원 = 2.7억 소득</p> <p>② 기준경비 : 3억-3천만-21.6%의 50%인 32,400,000 = 237,600,000원</p> <p>③ 단순경비 : 3억×(1-0.798)×3.4=206,040,000</p>	<p>입증경비 없거나 무 자료이므로 ①과 ② 보다 ③이 제일 적 음.</p> <p>③방법+20% 가산세 납부가 가장 유리함. (실소득보다 많음)</p>
결론	<p>(가) 매입자료 등 실제입증경비가 충분하면 ①실제기장신고가 유리(20% 세액 공제 적용되며 연 100만원 한도 가능 : 외부기장료 상당금액 수준임)</p> <p>(나) ③단순경비율은 2.8(3.4)배를 곱한 후 적용되는데 단순경비율(매출원가 율 등)이 95% 이상 매우 높은 경우 유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②기준경 비율 소득이 ③보다 적으면 두개 중 적은 금액인 ②기준경비율로 신고함.</p> <p>(다), (라) 입증경비가 없거나 부족하면 입증경비가 중요한 ①, ②보다 ③단순 경비율 금액이 제일 적어 ③으로 신고하며 20% 가산세 부담함</p>	



'코리안 타임'에서 '투명성'까지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해방 이후 미국인을 비롯해서 점차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과 살아 왔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엮여져 있다.

필자의 세대 중학교 시절쯤일까...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많이 사람 입에 오르내렸다. 으레 지각을 일삼는 한국인들을 조롱삼아 외국인들이 만든 말이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지도 않는 뻔뻔함과 허세, 그리고 비문화적, 야만적 행태를 비판하는 말이었다. 요즈음은 이런 말이 거의 쓰여지지 않는 사어(死語)쯤이 되었다. 그만큼 세상도 변하고 한국사람도 변했다. 허지만 아직도 그 비문화적 잔재를 즐기는 못난 무리가 있다.

친구, 친지들 약속모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전근대적인 야만족이다.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좁쌀만한 힘이라도 가졌다고 착각하는 인종들이 왕왕 그런 짓을 한다.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게다가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바쁜 시간에 온 것을 오히려 생색을 내며 티를 낼 때는 역겹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한편 역으로 '빨리 빨리'하는 조급성으로 둔갑하여 경박하기 짝이 없는 한국인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물질만능주의가 근대화의 쓰레기처럼 도처에 쌓여있고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조차 무시하는 쿠데타적인 범죄의식이 만연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스코필드박사(1888-1970)는 영국 태생으로 캐나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의전 교수로 평생을 헌신하셨다.

고락을 한국과 함께 하신 분이시다. 석호필이란 한국명을 갖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이셨다. 일제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독립에 협조하시기도 하였다. 독립 선언한 33인 한국의 애국자와 함께 34인 중의 하나라고 칭송되기도 한다. 그 분이 한국의 발전을 위하고 한국인을 사랑하여 세 가지 한국인의 단점을 지적한 내용이 있다.

빛내서 잔치하는 허영심, 허세와 거짓이 첫째다. 핑계대며 성실치 못한 게 그 둘째다. 부

패가 셋째라고 따끔한 매질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후 기막히게도 나라 전체가 빚내서 법석을 떨다가 IMF를 당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보면 정말 우리는 핑계가 얼마나 많은가. 집단이기주의니 하여 내 밥그릇만 챙기려는 핑계로 구조조정이나 개혁은 뿌옇게 되어가는 것 같다. 연신 외국인들의 경고도 아랑곳없다. 걱정이다.

위크아웃된 건설회사를 살리려고 부임한 전직관료 출신 CEO가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기업 뿐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서 '부패공화국'이란 자조어린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판이다. 전문가들의 첫 화두가 한국의, 한국 정부의, 한국기업의 '투명성'이었다.

제발 자료나 말이나 행동을 뺄치지 말고 정직하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창피한 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꾸짖어 줄 사회와 사회의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고도 경제 성장만 되면 선진국이 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젓먹은 힘을 다해서 한 맺힌 절대 가난은 극복할 지 모른다. 허세, 거짓, 핑계와 부패-사회와 경제의 투명성이 확보 되지 않고는 결코 경제 성장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선진국은 허망한 꿈일 뿐이다. 또한 돈만 많은 졸부 같은 나라가 결코 선진국도 아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7일 (금)	5월 10일 (월)	5월 11일 (화)	5월 12일 (수)	5월 13일 (목)
미	달	러 (USD)	1125.50	1121.40	1114.60	1119.10	1123.50
일	본	엔 (JPY)	1032.05	1033.12	1024.21	1029.96	1024.48
캐	나	다 달 러 (CAD)	925.84	924.79	921.77	925.11	926.67
홍	콩	달 러 (HKD)	144.88	144.40	143.53	144.06	144.67
위	안	화 (CNH)	173.61	173.61	173.48	174.29	174.62
유	로	화 (EUR)	1357.63	1364.80	1353.07	1359.20	1356.68
호	주	달 러 (AUD)	876.03	880.80	873.57	877.04	868.75
싱	가	폴 달 러 (SGD)	844.11	846.82	840.35	844.00	842.4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3.05	272.71	271.56	271.73	272.33

건강검진법상의 건강검진지원비용반영액은 근로소득 아님

Q 저희사가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 MOU 체결을 하여 임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주려합니다. 이때 발생한 회사건강검진지원금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복리후생 처리로 근로소득에 미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 할 경우에도 처리가 동일한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A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이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관련 법률에 의한 건강검진 이외의 종합건강검진비 등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면2팀-921, 2005.06.27.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게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장학금에 대한 세금처리

Q 현재 학습서비스를 이용중인 이용자에게 장학금 항목으로 지급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신고와 처리내용 문의 드립니다.

1. 장학금 지급을 받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기에 만약 소득신고를 할 경우 보호자로 신고해도 무관한지 검토 필요
2.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

A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이용자에게 일종의 사례 형식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등의 공급가액계산

- Q** 임대사업장의 건물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습니다
해당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수증자는 임대사업장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등의 공급가액 계산)
공급가액= 해당재화의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A** 무상증여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즉, 해당 건물의 시가(제3자간 거래하는 가액)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장 포괄양수도 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발행여부문의

- Q**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장을 아들에게 무상 증여하였습니다.
아들은 수증한 임대사업장의 임차인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사업장을 개업하였을 경우 임대사업장의 잔존재화(건물, 토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부의 임대사업장 폐업일: 2020년 12월 31일
자의 임대사업장 개업일: 2021년 1월 1일
- A**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업자마다 고객확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있게 마련이다. 보통 고객유치를 위해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 재화의 사업상 증여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는 공급대가가 수반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급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즉,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증정하는 "사업상의 증여"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은 재화를 증여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수증자(사은품이나 경품수령자)는 세금부담없이 사은품이나 경품을 사용소비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증자로부터 재화의 대가는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수증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사용·소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판매촉진상 재화의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을 별도로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통 사업자가 자기예산으로 납부하고,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의 부대비용으로 하여 비용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상 증여 등의 간주공급 등의 모든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애초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사업상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사업자가 구입한 재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이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되는 재화(사은품이나 경품 등)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예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사은품 등에 대해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품 등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356, 2000. 2. 9).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서 사업상의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광고선전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은품이나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은품이나 경품은 수령자의 과세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보통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은품의 경우 계속적 거래, 구매, 판매량 등의 마일리지 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이미 판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소득 46011-21044, 2000. 7. 26). 그러나 사은품이라도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제도 46012-12338, 2001. 7. 24).

역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등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득 46011-21019, 2000. 7. 22).

즉,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반면에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사은품이나 추첨을 통한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으로서 사업자가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이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올해부터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비율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1주택	보유	-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8%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8%	24%	32%	40%	48%	56%	64%	72%	80%



연금저축 소득구간별 실질 비과세율

과세 표준	소득세율(a)	적격연금 세액공제율(b)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산할 경우 소득공제율(b/a)
1200만원 이하	6	15	25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5	1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5	63%
	24	12	5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2	34%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2	3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2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2	29%
10억원 초과	45	12	27%

(보험연구원)



주요국 반도체 산업 지원책

국가	내용
미국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비용의 40% 세액공제, SOC 부양책 500억달러 반도체 산업 육성
유럽	500억유로 투자계획
중국	법인세 면제, 2025년까지 반도체 170조원 투자
한국	업계 - R&D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50% 세액공제 요청 정부 - 반도체 지원책 등 K반도체 벨트 전략 상반기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 10가지

1.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시간 때우기 식으로 만났던 인간관계도 산뜻하게 정리 할 필요가 있다.

2.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쓸데없는 잡담이나 나누면서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 책을 읽는 편이 훨씬 생산적인 일이다.

3.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라.

행복의 기준은 자신이 만들어라. 만일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이라면 당장 건강관리에 시간을 투자한다.

4. 계획보다 50% 여유 시간을 잡아라.

일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 그 시간 내에 하루 처리할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하라.

5. 단순하게 생각하라.

무슨 일이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에 자신의 능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쉽게 생각할지 방법을 궁리하자.

6. 쉽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장 행동으로 옮겨라.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대견해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즐겁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에 뛰어든다.

7. 나만의 능력을 찾아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도 스스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능력이다.

8. 목표는 구체적으로 숫자화시켜라.

목표는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있다 라는 전제하에 세우는 게 효과적이다.

매일 1%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한다면 한 달 아니 1년 후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9. 일을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라.

일은 인생의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언제든지 회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아. 할 만한 베짖이 생기지 않겠는가.

10.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지 마라.

한 가지 일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단지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을 몰아치는 동안 내안에 잠자고 있는 진정한 재능이 그대로 잠들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 장치 임차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국조-2423, 2020.08.25

■ 질 의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에 위치한 법인(이하 "대만법인")으로부터 기계 장치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함
- 갑법인은 갑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소재한 특수 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대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게 함

질의

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기계 장치를 임차하여 갑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위치한 특수 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갑법인에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396, 2020.05.26

■ 질 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을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개정규정 적용기한인 2020.12.31.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371, 2020.06.12

■ 질 의

- 내국법인이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갑설)사업비 지출시 전액 손금에 산입
 - (을설)사업비 지출시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탁운영 주체로 선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서면법인-4612, 2020.08.21

■ 질 의

- 질의 법인은 자금이 필요하여 일본 및 국내에서 자금을 빌려서 사용한 후 상환하고자 함
 - 자금을 차입시 현금을 빌려 이자를 더해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화폐를 빌렸다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상환함
- 〈차입, 상환 거래 예시〉 차입한 수량의 120% 상환 조건
- (차입시) 가상화폐 100개(시세 1원)
 - (상환시) 가상화폐 120개(시세 1원에서 2원으로 상승)
 - 자금 흐름 : (차입시) 100 유입, (상환시) 240 유출
 - 위 거래에서 법인은 차입시에는 100(100개 × 1원)이 유입되나 상환시에는 240(120개 × 2원)이 유출되므로 140의 지출이 발생

질의내용

- 법인이 가상화폐의 시세와 연계하여 자금을 차입·상환하는 경우 차입한 원금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경위·목적·내용, 사업·수익과의 관련성,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세금신고 어려워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제공 대상은 약 1100만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약 240만명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 길잡이 서비스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히 마칠 수 있다.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 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한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외 다른 세금 신고도 신고기한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1분기 국세수입 19조원↑... 소득세 법인세 동반 증가

지난해 1분기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실적이 개선하고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추가로 늘렸지만, 세금이 더 걷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위기상황에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3월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목표 세금 수입의 31.3%를 거둬들인 것으로 2020년 1분기보다 6.9%포인트 더 빠르게 세금 공간이 채워진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납부한다. 따라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 경제상황의 청사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안도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업력 7년내 창업기업 187만5천개... 총 매출액 750조원

2018년 말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187만5천개로 전년 말보다 7.3%(12만7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 중 정보통신·교육·예술·스포츠 등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포함하는 기술기반 업종이 25.3%(47만5천 개), 비기술기반 업종이 74.7%(140만 개)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표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2.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27.8%), 30대(22.0%), 60대 이상(12.3%), 20대 이하(5.8%) 등의 순이다. 이중 20대 이하 대표자는 전년 대비 16.6%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은 304만1천 명으로 1년 사이에 5.0% 늘었다. 창업기업이 2018년 창출한 매출은 749조3천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이 중 기술기반 업종 매출이 33.5%, 비기술기반 업종이 66.5%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8천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창업 자금은 평균 3억1천만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자산은 5억1천만원, 영업이익률은 7.6%(평균 3천900만원)였다"고 밝혔다.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 국세청, 2021. 5

- (개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안내대상: 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
 -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합니다.
 - * ('19년) 20% → ('20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간편인증(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
- (코로나19 세정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

1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 31.(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 (안내대상자)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만7천 명)에 비해 49% 증가하였습니다.
-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¹⁾하거나 출력²⁾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1) 안내문 열람 > 안내문 내려받기 > 이미지로 저장 > 문자(모바일 팩스 등)로 전달
 - 2) 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 와 'My 홈택스' 에서 출력 가능
-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고방법)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5. 1.(토)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 후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 (접근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확정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안내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제 공 내 용
부동산 등	■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 현금 영수증 자료
	■ 취득세(등등록세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공 통	■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조회 등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올해 신고분 부터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하였습니다.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개정내용(참고511 계산사례 참조)

구 분	2019년 귀속(종전)	2020년 귀속(개정)
양도손익 계산	■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
기본 공제	■ 국내·국외주식 각각 250만 원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250만 원

-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19년) 20% → ('20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모두채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한 국외 파생상품 양도차익도 모두채움 제공

- ☐ (홈택스 등 접속 간소화) 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¹⁾, 생체인증²⁾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 통신사 PASS, 카카오페이,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 국민은행
 - 2) (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 ☐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 ☐ (지방소득세 신고지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 번의 누름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방법) 홈택스>접속>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인터넷 신청' 누르기

4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 가능
-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참고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①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작성' 선택 ○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마지막 날(5.31.)은 24:00까지 운영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전자신고 이용방법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기한: '21. 5. 31.(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②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로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2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서비스 개선내용

- ① 홈택스 로그인 방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인증 수단 사용 가능
 - 기존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본인인증 로그인 외에 간편인증(카카오, 페이코, KB모바일인증, 통신사PASS, 삼성패스)으로 로그인 가능
- ② 모바일 안내문 출력 및 세무대리인 등 전달 기능
 -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출력하거나 전자팩스로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달할 수 있음

참고 3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① 기본정보 입력
 - 양도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신고 [확정신고 작성] 버튼 클릭하여 양도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
- ① '양도자산종류', '양도연월' 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 클릭
 -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확

인] 버튼 클릭

- ② 양도인(신고인)의 연락처를 '전화번호'란에 반드시 입력
- ③ 화면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②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 양도한 주식별로 양수인의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입력
- ① 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선택
 -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 지분 입력
 - *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으로 양수인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 선택
- ③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양수인 목록에서 (☑)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 ④ 입력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⑤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③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 양도한 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 ① 주식등 종목명(또는 코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물건종류(코드), 세율구분, 주식등 종류코드, 취득유형,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입력
- ②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등을 빠짐없이 입력(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소득금액과 감면종류/감면을 까지 입력)
 - *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여' 선택
- ③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④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도자산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 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가능
- ⑥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 [주식거래내역서 입력] 버튼 클릭
- ⑦ 확인 버튼을 클릭 후 ⑧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등록·저장
- ⑨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④ 세액계산 및 확인

-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확인
- ①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확인



② 입력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팝업되며, 기본공제 한도에서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연간 한도 250만원)

③ [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양도신고서 존재 확인

④ 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⑤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신고서 접수 완료

참고 4 확정신고 계산 사례

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0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국내주식*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 중소기업 대주주 외의 자가 양도한 주식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일반법인)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세율	25%	25%	20%	25%, 20%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② (국내주식 합산신고) '20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5월 양도 (일반법인 대주주)	8월 양도 (일반법인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150,000	200,000	35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47,500	200,000	347,500
세율	20%	20%	25% *
산출세액	29,500	40,000	71,875
기신고·결정세액	-	-	69,500
납부할세액	29,500	40,000	2,375

* 3억원 이하 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③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국외 파생상품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예정신고 없음)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확정신고		
	국내파생상품	국외파생상품	계
양도소득금액	200,000	△ 70,000	130,000
기본공제	-	-	2,500
과세표준	-	-	127,500
세율	-	-	10% *
산출세액	-	-	12,750
기신고세액	-	-	-
납부할세액	-	-	12,75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10% 적용



- ④ (부동산 합산신고) '20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합산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5월 양도)	상가(8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	38%	24%	38%
산출세액	48,050	9,180	70,850
기신고·결정세액	-	-	57,230*
납부할세액	48,050	9,180	13,620

*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원) = 48,050천원 + 9,180천원

- ⑤ (부동산 비교과세) '20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비교과세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비교과세)	
	주택(3월 양도)	주택(7월 양도)	산출세액 합계액	누진세율
양도소득금액	135,000	83,000	-	218,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32,500	83,000	-	215,500
세율	45% ¹⁾	24% ²⁾	-	38%
산출세액	44,725	14,700	59,425	62,490
납부할세액	44,725	14,700	-	3,065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 10% 가산

2) 1주택자로 기본세율 적용대상

참고 5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

- ① 부동산 등 신고관련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양도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A는 인기아파트를 5억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 원 납부 후, 1억 5천만 원(프리미엄 1억 원 포함)에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2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 ○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B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수령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신고누락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C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5억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2억 원, 3억 원으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 부담부증여*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부증여 :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나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납세자 D는 3주택자로 자에게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자는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5억 원을 승계하여 채무 5억 원 공제받고,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 D는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3주택 초과(20%추가과세)대상이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취득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 신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F는 15년 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다 신고(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 ○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G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하였으나, 추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고 과다신고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H는 미분양 아파트를 5천만 원 할인분양 받아 취득하고, 추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대가로 취득가액 과다신고
필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 납세자 I는 아파트 취득 후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을 지불하였다며, 사업자로 부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 *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됨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납세자 J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천만 원)를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대출금이자 는 필요경비공제 안됨)
공제·감면·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 - 납세자 K는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 *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 ○ 거짓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 - 납세자 L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세 신고하지 않았으나, 취득시 다운계약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 배제 *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됨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 납세자 M은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면서, 보유기간 12년 중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40백만 원 이상인 연도가 5개년으로 8년에 미달하나 감면 신청 * 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 또는 대리 경작한 농지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 납세자 N은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 원,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 원 합계 2억 원 감면 신청,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감면받음 *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하여 연간 1억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원, 5년간 2억 원 한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음

② 주식 등 신고관련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 6.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 '20. 1. 1. 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동일주식이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과 상장·비상장 주식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일반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대주주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0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 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2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기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경우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율이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한 경우
대주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국내외 주식 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0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 이후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20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

구 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p>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참고 6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10억원이상), 코넥스(4%·10억원이상)
소득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국외주식은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세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주식:10% ~ 30%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 외국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
공제·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조약 상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국외주식: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참고 7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 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소득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자본시장법 § 58)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 연 250만원
세 율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 해당없음
신고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 (예정신고 없음)

참고 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

1. 신고대상 등

①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
 -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②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 2020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0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 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6%~42%)
		2년 미만 ¹⁾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기본세율)
		1년 미만 ¹⁾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40%)
	1세대2주택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 ²⁾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 ³⁾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 $\max\{\text{기본세율}+10\%, (40\% \text{ or } 50\%)\}$

2) 지정지역의 경우 :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분				세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25% *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외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
			1년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6~42%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2%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를 적용

○ 파생상품

과 세 대 상		세율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19. 4. 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10%
국외	해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④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 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분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국내·국외주식에 대하여 통산하여 1회만 공제 가능합니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국내주식등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참고> 국내·국외주식 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구분	2019년 귀속(종전)	2020년 귀속(변경)
양도손익 계산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불가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가능
기본 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250만원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250만원

2. 전자신고

⑥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 ☐ 홈택스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하여야 합니다.
- ☐ 손택스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요령에 대한 동영상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 ☐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⑨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⑩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 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⑪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¹⁾나 스마트폰 앱²⁾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2)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⑫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 ☐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1. 5

- ◆ (점검결과)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28건(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 중 13건(회사5, 대표자1, 감사인7)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회사) 위반회사(19사) 대부분(18사)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의무 불이행
 -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사이며,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13사에 달함
 - (대표자/감사) ① 대표자는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② 감사는 운영실태평가보고 과정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 미숙지 등으로 위반
 - (감사인) 회계법인(7사)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위반
- ◆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가 전년대비 감소(36사→19사, 47.2%↓)하였는바, 동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 (유의사항) 新외감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운영·검증절차 등이 강화되었는바, 회사·감사인 관련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
 - ① 회사는 CEO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 하고, ②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반드시 표명하여야 함



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외감법 제8조 제1항)

*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목적)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사항(외감법 제8조) 〉

구분	내용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감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상장법인)·검토(비상장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표명

- (법규위반시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외감법 제47조 제2항)

II 점검결과 분석

- (총괄)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 총 28건(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의 위반사례가 발견되었고, 이 중 13건(회사 5사, 대표자 1인, 감사인 7사)에 대하여 증선위('21.4.21.)에서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 외감법시행령 별표2 및 외감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붙임1’ 참조)
-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하였으
며,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47.2%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단위: 사, 명)

회계연도	내부회계 미구축		내부회계 미보고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합계	
	회사	과태료 면제*	대표자 등	과태료 면제*	감사인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2016	35	28	2	1	10	3	47	32
2017	36	33	2	-	4	4	42	37
2018	19	14	2	1	7	-	28	15
계	90	75	6	2	21	7	117	84

* 회생절차, 폐업, 임직원수 5인 이하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 (회사유형별) 위반회사(19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1사(코스닥 상장)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8사)
 -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개사(익년초 회생절차 진행)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 관
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
- (자산규모별) '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나,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
으로 감소되어, 이후 연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
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으며,
 - * '17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소규모·한계기업
(11사)이 다수를 차지
- (감사의견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사로 대부
분을 차지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
는 내부통제 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판단



- (과태료 부과) 위반회사 19사 중 5사에 대하여 각 300~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면제사유*)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면제
 - * 외감법시행령 별표2 및 외감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붙임1' 참조)

주요 위반원인 분석

- (중요한 의사결정자 부재로 미구축) 대표이사 및 임원의 실행선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상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없는 경영권 공백 상태 기업이 다수를 차지
- (회생절차 신청으로 미구축)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관리가 어렵다고 보아 과태료를 면제 하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 회계연도와 워크아웃 진행회사는 구축의무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착오하여 위반

(대표자·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

- (보고/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
 - 특히, 감사는 新외감법 시행으로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였음에도 종전 방식으로 보고
- (과태료 부과) 위반한 대표자 1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원인 분석

- (미보고 의무 위반)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준비)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미평가 의무 위반) 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의 평가 업무가 강화되었음에도 운영실태평가보고를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이행한 것으로 되어있고, 감사의 서명 등이 부재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 (회계법인 규모별) 위반 감사인 7사 중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없으며, 1사는 중형회계법인, 6사는 소형회계법인(감사만 포함)에 해당
 - ※ 공인회계사 600인 이상 또는 감사대상 상장사 수 100사 이상은 대형, 공인회계사 120인 이상 또는 감사대상 상장사 수 30사 이상은 중형, 그 외는 소형 회계법인으로 구분

- (감사의견별) 감사인 7사의 위반과 관련된 11개 피감사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5건, 의견거절이 6건임
 - 다수의 감사인이 단순 착오 혹은 '18년도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의무위반 발생
 - 또한 상기 11사 중 1사*를 제외한 10사는 회사 측의 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되었음
 - * 공시과정에서 감사인이 검토보고서 단순 누락
- (과태료 부과) 위반 감사인 7사에 대하여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가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됨

주요 위반원인 분석

- (내부회계검토의견 미표명) '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검토의견 미표명
- (최종 제출여부 미확인) 내부회계 관련 검토를 수행하고 의견까지 작성하였으나, 착오 등으로 검토의견 공시를 단순 누락
- (전년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의무대상) 전년도말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었으나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이나, 아닌 것으로 착오하여 의견 미표명

III 유의사항

1 新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속지 필요

- 회사의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新외감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었음
 -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함
 - * 新외감법 시행으로 주총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사회 및 감사에는 대면보고 필요
 - (감사)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함
 - * 평가보고서는 작성 후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등의 징구를 통해 감사의 의무 이행 점검이 가능해졌으므로,



평가보고서 공시를 하지 않는 비상장법인도 반드시 규정 준수에 유의할 필요
 ※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대표자(또는 감사)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新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 분	舊 외감법	新 외감법('18.11.1. 시행)
조항	제2조의2~3	제8조
적용대상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유한회사, SPC 등 제외)
보고주체	상근임원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보고대상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감사의 책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음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 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강화

- '19회계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 되었으므로,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 19년(2조원 이상) → ' 20년(5천억원~2조원) → ' 22년(1천억원~5천억원) → ' 23년(전체)

3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정보 관련

-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함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 22년(2조원 이상) → ' 23년(5천억원~2조원) → ' 24년(전체)
- 상장지배회사는 국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회계정보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을 준비할 필요

4 감사인의 검토(감사) 의견 표명의무

-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함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

5 최종 공시여부 확인 필요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붙임2 참조)
 - *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③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 감사인 : 감사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6 위법사실 재발 방지에 유의

- ☐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20/100 이내에서 가중

7 회계정보 위·변조, 훼손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 ☐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회계정보 위·변조, 훼손 등의 행위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신고대상에 해당 (일정요건 충족시 포상금 지급)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외감규정 별표9 참조)

① 과태료 부과 방법

-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하여 최종 과태료부과금액을 결정

〈 과태료 부과 산식 〉				
법정최고금액	× 예정비율 =	예정금액	± 가중·감경 및 조정	=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기준금액의 20%

※ 위반동기 판단기준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반결과 판단기준

- (1) 중대 : 해당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 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미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의미

② 과태료 면제 사유

- (회생절차진행 등) 위반당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임직원수 5명 이하) 위반당시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기타) 조치시 폐업, 청산, 파산 등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4.가]

붙임 2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1.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 사업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첨부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 규
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보고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202x. 3. 17 (주주총회) 202x. 1. 28 (이사회) 202x. 1. 26(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내부회계관 리자	<이하 생략>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xx년 xx 월 xx 일

대표이사 (서명)

내부회계관리자 (서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202x. 1. 28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하 생략〉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위원회에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xx년 xx 월 xx 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xx회계법인)

구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종합의견	〈이하 생략〉			
기타 내부회계제도 관련 의견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예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

우리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검토)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II. 감사인 : 감사보고서에 첨부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보고서 작성 및 회사 운영실태보고서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는 xx주식회사의 xx년 xx월 xx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첨부: 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2.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

우리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검토)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xx년 xx월 xx일 현재의 재무상

〈이하 생략〉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xx년 xx 월 xx 일

대표이사 (서명)

내부회계관리자 (서명)